

Bwana Yesu asifiwe! (주 예수를 찬양합니다)

“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(엡 5:15-16)”

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하신 주님의 교훈을 묵상해
봅니다. 정말 세월은

‘유수流水’ 같이 빠르고, 급한 소식을 전달하는 ‘체부’ 같이 빠르게 흐름을 느낍니다. 벌써 11 월
말이 되었으니까요.

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도 온 가족이 큰 기쁨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.

이곳 선교지 탄자니아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기독교 명절(절기)은 없습니다. 언젠가
오래 전에 선교편지를 통하여 소개

해 드렸듯이 어떤 종류이든 그 계절에 해당되는 추수가 가능 하기 때문이죠. 모든 일에 감사 드리며
11 월 선교소식을 나눕니다.

@ TCBC(탕가신학교) 소식.

1) 졸업식;

11 월 23 일 이곳 시간으로 오전 10 시에 제 12 회 졸업식이 있습니다. 3 년 전 19 명이 입학하여
4 명은 중도에 하차를 하고

2 명은 작년에 2 년제로 졸업을 했으며 나머지 13 명이 올해 3 년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
중에서 여학생 2 명이
있습니다.

2) 신년도 입학생 모집 소식;

현재까지 18 명이 서류를 완벽히 제출 했으며 계속하여 모집 중에 있습니다. 매 해마다

우리신학교에서 감당 할 수 있는 인원수가

각 학년당 약 30 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각
교단 지도자들이 교육을 통한

자기 교단 지도자들 양성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. 혼자만 커가는
‘음부유-

BAOBOB’나무(영화 라이온 킹에 나오는 홀로서 있는 큰 나무)같은 지도자가 아니라, 비록 한번의
열매를 맺고 잘려져

나가야 하는 아픔이 있는 바나나 나무(바나 나무는 열매를 수확 한 후 원 줄기는 잘려나가도
계속하여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감]

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

3) 제 3 회 동창회 준비;

TCBC 동창회(alumni)는 매 2 년마다 열리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. 내년 8 월에는 제 3 회가 되며 참석자들은

동문들 부부가 대상입니다. 동창회는 저녁시간 부흥회를 비롯하여 part 별 세미나가 있습니다.

내년 동창회의 주 강사님으로는

미국 북버지니아에 위치한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 해주시기로

했습니다.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미리

잘 준비된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@ LIVING STONE BOYS' SEMINARY 소식;

1) 종강 소식;

2012 년도 학기 말 고사가 11 월 23 일부터 시작되며, 12 월 1 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내년 1 월 12 일 새

학기(새 학년)가 시작됩니다. 올 한 해 동안 2 명의 학생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(말라리아 와 허리 수술 후유증)학업을 중단

했으면 1 명의 학생이 편입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총 91 명이 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 방학 동안에도 충분한 휴식으로 충전하여

모두가 등교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또한 감사드릴 것은 처음 입학 때와는 다르게 모든 학생들의 학업실력이 많이

향상 되었다는 점입니다. 평범한 교사 위주의 아프리카 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힘들게(괴롭힘) 한

지도자의 뜻을 잘 따라준 인내의 결과라고 믿습니다.

2) 2013 년도 신입생 모집 소식;

리빙스톤 학교는 매해 3 학급 120 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12 년 학생 모집은 처음 시작이며 경험 부족으로

신입생 모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교사들의 합심으로 더 발전된 학생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미 4 과목의

필수 시험을 통하여 120 명을 선발했고, 혹 등록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15 명을 대기 명단으로 기다리게

했습니다. 이들 모두는 12 월 3 일부터 2 주간 시작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(지역적으로 너무 먼 거리 학생들은 제외)에 모두 참석

하도록 했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는 간단한 학교 소개를 포함 한 영어와 수학 2 과목만 집중적으로 미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.

그때가 되면 등록 학생들의 숫자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많은 학생들의 등록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.

3) 교사 모집;

내년에는 최소한 3 명의 교사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. 필요한 과목의 교사는 수학 1 명, 영어 1 명, 물리 1 명이 입니다.

교육자로서의 정직성과 학생들을 향한 열정을 가진 헌신자들이 모집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5) 기숙사 마무리 공사;

모든 준비를 12 월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형제들의 움직임이 바쁩니다. 지금은 마지막 단계로 창틀 페인트 및

모기장 부착, 문 부착, 전등 및 fan 달기, 그리고 침대 제작 등입니다.

그 중에서 침대 제작 비용(약 \$7,000.)이 상당부분 부족합니다.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.

6) 컴퓨터 실 공사;

지난 10 월 와싱턴 한인교회 선교 팀들께서 남겨주신 \$16,000.의 헌금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지붕 씩우기를 마치고 지금은

내부 벽 바르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비용이 부족하지 않는 한 12 월 말까지는 완공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7) 교과서 구입;

이곳 탄자니아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받습니다.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빙스톤 학교는 전 학년

전과목 교과서 지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학비에 그 대금이 포함 되어 있으나 학비를 3 번에 나누어서 내다보니

초창기 학교의 경제사정이 여유치 않아 큰 기도제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일로 박 선교사는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르살렘 여행

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(1 차 11 월 25 일/ 2 차 12 월 중순). 원만한 교과서 구입과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.

드립니다.

8) 도서관 건축;

현재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. 약간 언덕을 이용하다 보니 공사 일정이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

그래도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아마 2 주 후면 모든 기초 공사가 마무리 되고 벽돌을 쌓게 될 것 같습니다. 도서관은 큰 공사입니다.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.

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어김 없이 큰 비를 수일 동안 내려 주셔서 기초를 다져주셨습니다. 정말 장대 비였습니다. 별 다른 장비가 없이 공사하는 이곳에서 인간의 손으로는 깊이 파헤쳐진 땅속까지 다질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큰 비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. 이번 비는 큰 공사라서 그런지 더 많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(할렐루야). 이 기적같은 사건은 일 하는 형제들에게도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중요한 파트의 일꾼들은 대부분 10 년 이상씩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. 공사가 잘 진행되어 내년 중순경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아~이고---- 11 월에는 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

모두들 건강 하시고요.

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또 연락 드리겠습니다.

2012 년 11 월 21 일

탄자니아 에서 박윤석 선교사 올림.